

6·15 통일대축전



6·15 남북공동선언 6돌을 기념하기 위한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14일 광주를 방문한 북측 대표단 59명이 북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참배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 '5·18 묘지' 첫 참배

어제 오후 대표 59명 헌화·추모 "자주·민주·통일 염원 계승해야"

5월 14일 광주시민들이 세계적 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이 곳에 묻혔다"며 헌화·참배했다. 5월 14일 오후 4시 북한대표단이 찾아오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단 19명, 안경호 단장을 비롯한 민간 대표단 40여명 등 북측 대표단 59명은 박경순 5·18묘지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민주항쟁추모탑 앞에 섰다. "5·18 민주영령들을 위해 묵상합시다"라고 북측 민간대표단 김대봉 씨가 말하자 일행은 우산을 잡고 수초간 묵념한 뒤 빨간 카네이션을 헌화했다. 흰 국화 대신 빨간 카네이션을 고른 것은 사회주의국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묘지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설명했다.

립 현충원을 찾았을 당시에는 헌화와 분향은 생략한 채 간단히 묵념만 했다. 묘역으로 향한 대표단은 최미애, 박기현 열사의 묘를 둘러봤다. 박 소장이 "최미애씨는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이 묘에는 두 사람이 있는 셈입니다"라고 설명하자 김영대 단장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사망 당시 14세였던 박기현 열사 묘지 앞에서는 "희생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웠구나"고 묻고 안 타케운 표정을 지었다. 대표단은 유가족들이 묘비에 적어놓은 문구를 읽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우승은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다분다고 하지만, 남쪽이 그 중에 한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월드컵 결승전을 기원했다. 이어 자리를 함께 한 이응홍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 0으로 격침시킨 사실을 상기시키자 "그렇지요, 북과 남으로 갈라져(월드컵) 소식 듣지만 우리 민족끼리 응원해서 자주 올라가도록 만듭시다"고 즐거워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6돌을 기념하기 위해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북 대표단의 화제는 단연 월드컵이었다. 북측 당국 대표단장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은 14일 광주공항에 입국, 마중 나온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 남측 대표들에게 "축구 소식을 들었다"며 "광주 시민들이 세계적 구선수권대회(월드컵)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말을 건넸다.

남·북 대표단 화제는 월드컵 "남한 팀 결승 진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바로 올라가자. 북측 사람들이 경기장에 있을 때 (남한 팀의) 경기가 있던 다 한자리에 모여 구경하면 좋겠는데 경기가 없다"며 아쉬워했고 김 단장은 "남측이 계속 올라갔으면 구선수권대회(월드컵)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말을 건넸다.

김 단장은 또 2002년에는 남측이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바로 올라가자. 북측 사람들이 경기장에 있을 때 (남한 팀의) 경기가 있던 다 한자리에 모여 구경하면 좋겠는데 경기가 없다"며 아쉬워했고 김 단장은 "남측이 계속 올라갔으면 구선수권대회(월드컵)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말을 건넸다.

김 단장은 계속해 "세계적인 관측에 의하면 우승은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다분다고 하지만, 남쪽이 그 중에 한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월드컵 결승전을 기원했다. 이어 자리를 함께 한 이응홍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 0으로 격침시킨 사실을 상기시키자 "그렇지요, 북과 남으로 갈라져(월드컵) 소식 듣지만 우리 민족끼리 응원해서 자주 올라가도록 만듭시다"고 즐거워했다.

광주시민·북 동포들 "우리는 하나"

행사 이모저모

깃줄은 하나였다. 14일 시작하는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분단 60년의 세월을 넘어 평양에서 광주로 한달음에 날아온 북측 동포들은 "광주나 평양이나 한 땅이나 한 강토"라며 감격해 했다. 광주시민들도 한반도기를 흔들며 "우리는 하나"를 외쳤다.

북측의 김영대 당국대표 단장 등은 분위기가 활약해져자 인사발도 하지 못한 채, 황금히 남측 경호요원 등에게 둘러싸여 VIP룸으로 이동.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O...백낙청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북측 대표단이 도착하기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께 공항 2층 '아시아나라운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하는 이유 등을 설명.

공항 환영인파 '복직'

O...14일 오전 11시55분께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단이 광주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역사회 단체회원들이 대거 나와 열렬히 환영. 북측 대표단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광주 공항을 메운 대한적십자사 광주지부 회원 60여명과 광주 성모유치원 어린이 20여명, 민주노총 광주지부 회원 등은 한 반도기와 함께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반갑게 손님을 맞이.

O...백낙청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북측 대표단이 도착하기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께 공항 2층 '아시아나라운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하는 이유 등을 설명. 백 대표는 또 축전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체 정신의 '아랑'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광주서 만나 기뻐합니다

O...이날 낮 12시10분께 김영대 단장을 선두로 북측 대표단이 숙소인 무등파크호텔에 들어오자 미리 나와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광주에서 만나 기뻐합니다. 이번 행사 잘치르도록 합시다"고 인사. 김 단장도 "이종석 장관 선생의 이름을 들어 친구 같다"며 친근감을 표시.

속우로 개막식 지원

O...14일 광주에 쏟아진 폭우로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늦어지고 행사장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도 예상보다 크게 밀려다 주회축이 발을 동동. 광주에는 이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최고 37mm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린 예정이던 개막식이 30분 늦은 7시 30분에야 시작.

LA서도 6월 기념식

O...북한 평양방송은 미국에 있는 친북 인터넷매체인 민족통신이 취재진 200여명 몰려 O...북측 대표단이 도착한 광주 공항에는 200여명이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이다 한 때 고성이가 오는 등 벌이.

LA서도 6월 기념식

O...북한 평양방송은 미국에 있는 친북 인터넷매체인 민족통신이 취재진 200여명 몰려 O...북측 대표단이 도착한 광주 공항에는 200여명이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이다 한 때 고성이가 오는 등 벌이.

취재진 200여명 몰려

O...북측 대표단이 도착한 광주 공항에는 200여명이 가까운 취재진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이다 한 때 고성이가 오는 등 벌이. 공황 출구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대기하던 기자들은 북측 대표단이 도착했지만, 동행한 북측 촬영기자가 대표단의 모습을 가리자 이들을 잡아끄는 등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며 욕설을 하기도.

Table with 4 columns: 행사명, 내용, 시간, 장소. Details about the 6.15 National Unity Grand Festival event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정우동, 한국공인중개사, 매곡부동산,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아름다운부동산, 력키공인중개사, 여수지역, 국민공인중개사, 동화마을(신도시건설), 개인 섬, 금일읍 마을앞 작은섬, 고흥유자발, 풍유해수욕장/전원주택/음식점 최적, 우주센터 고희사내권.